

발제문 - 안전대구를 위한 시민의 제안

발제 : 정유진 대구416연대 집행위원

1.대구416연대와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

- 1) 세월호참사와 10여년간의 투쟁, 그리고 생명존중 안전대구 만들기에 이르기까지
 - 416연대 : 세월호참사이후 4월16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, 시민,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상설사회운동조직
 - 대구4.16연대 : 2014년 5월 8일, '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' 결성 이후 2019년에 단체와 개인을 모두 아우르는 대구4.16연대로 조직을 확대하여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 왔음.
 - 앞으로의 실천 과제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미완의 과제 실현, 세월호참사 외 재난참사 피해자권리운동 지원 연대 활동 강화, 생명안전운동조직으로서 안전할 권리의 제도적보상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촉진에 힘쓸 것.
 -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이후 2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대로 된 추모비 하나 없는 상황임. 이면합의, 긴 법정투쟁으로 유가족은 기만당하고 매도됨.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구지하철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에 대구416연대도 연대하기로 약속함.

- 2)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실시
세월호 참사 이후 대구시민의 안전의식 수준과 변화를 진단하면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

-2021년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

- ▶ 기 간 : 2021년 10월 1일~11월 1일
- ▶ 조사방식 :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질문지를 통한 현장설문조사
- ▶ 대 상 : 대구거주 시민 331명

-2023년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

- 설문기간 : 2023년 11월 18일 ~ 12월 14일
- 조사방법 : 자체 제작한 설문지에 의거 현장 배포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(현장조사 107명, 온라인조사 117명)
- 참여대상 : 대구 거주 시민 224명

-2024 대구시민 안전의식조사

Ⅰ 조사 대상 Ⅰ
•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500명
Ⅰ 조사 방법 Ⅰ
• 구조화된 설문지(Structured Questionnaire)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(Face to Face Interview)
Ⅰ 조사 일정 Ⅰ
• 2024년 7월 15일(월) ~ 2024년 7월 29일(월)
Ⅰ 조사 연구 및 분석기관 Ⅰ
연구/컨설팅 기관 코뮤니타스

3)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리서치연구

-연구개요 :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방향 근거자료 마련 (세월호참사 인식조사, 재난발생 이후 사회변화, 안전사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도출)
-대상 : 전국 만20세~75세 성인 남/녀
-조사방법 : 온라인 조사
-포분규모 : 2,000명
-조사기간 : 2024.5.16(목) ~ 5.27(월)
-조사연구 기관 : (주)에스티이노베이션

2.다양한 설문을 통한 안전의식 비교

1) 명칭 정리

2021년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-> 2021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

2023년 대구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-> 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

2024 대구시민 안전의식조사 -> 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

세월호참사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리서치연구 -> 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

2) 설문 결과 비교

*안전의 상대적 가치

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'다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안전이 중요하다'(74.3%)

[2021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안전성이 편리성(신속성) 보다 더 중요하다'(58.6%)

[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안전성이 편리성(신속성) 보다 더 중요하다'(63.4%)

([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](행정안전부, n=4,000) 효율성이나 편리성보다는 '안전을 우선적'으로 생각한다'(평균 78.0점))

*재난안전관심도

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'재난안전에 대한 관심' - 관심있다(69.5%), 관심없다(6.7%)

*대형참사 인지도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2022년 '이태원참사'(98.7%) 인지도 매우 높음,
2014년 '4·16 세월호 참사'(98.7%) 인지도 매우 높음,
2003년 '대구 지하철 화재사고'(96.9%) 인지도 매우 높음,
1995년 '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'(89.2%) 인지도 높음

*안전한 사회 인식

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'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' - 안전하지 않다(69.9%), 안전하다 (26.9%)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?' - '우리 사회 전반'은 '조금 위험한 수준'(평균 45.7점), '거주 지역'은 '조금 안전한 수준'(평균 53.7점), '개인'은 '조금 안전한 수준'(평균 54.4점)

*대형참사 발생원인

[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국가 안전 지휘체계 및 시스템 미흡'(41.5%), '국가 안전의식 부족'(17.0%), '단속 및 처벌에 대한 법·제도 미흡'(14.7%), '시설 관리 및 감독의 부실'(8.9%), '시민 안전의식 부족'(6.3%), '안전시설 방치 및 투자 미흡'(4.0%)
순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안전 지휘 체계 및 시스템 미흡'(21.8%), '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부실'(21.6%), '안전교육 및 안전에 대한 홍보 부족'(15.2%), '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흡'(14.4%), '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·제도 미흡'(14.2%), '안전시설, 장비 등에 대한 대비 미흡'(12.8%)

*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

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'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' - 법적 처벌과 규제 강화 (39.1%), 재난대응 행정개선(28.5%), 교육 및 인식제고(22.0%)

[2021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구시 차원으로 해야 할 노력' - 안전사회 조례 제정(32.0%) 학교와 민간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(25.1%)

[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구시 차원으로 해야 할 노력' - 법률·행정·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의 안전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.(26.8%) 학교와 민간 교육 기관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.(23.2%) 대구시가 사회적참사 기억하기를 위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.(22.8%) 안전사회 조례를 제정(17.9%)

*재난참사 예방

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'재난참사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' - 책임자 처벌(87.1%), 진상규명(78.2%), 피해자 및 유가족의 활동(74.9%), 추모공원건설(70.4%)

*대형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

[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추모비설치, 안전교육 등 기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'(94.64%)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각종 대형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거나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행동에 공감하십니까?' - '공감한다'(47.4%), '공감하지 않는다'(28.1%)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'각종 대형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거나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행동이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' - '도움됨'(43.3%), '도움되지 않음'(39.2%), 보통이다(17.6%)

*대형참사 관련 방안(대구지하철참사)에 대한 동의 정도

[2023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

'중앙로역 입구 추모비 또는 안내표지 설치'(87.1%)

'대형참사 관련 추모비 설치, 안전 교육 등 기억 노력'에 동의(94.6%)

'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·18 기념공원 병기'에 동의(92.4%)

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대구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'조례 제·개정 등 법·제도적 보완'(동의함 68.0% ↔ 동의하지 않음 15.9%)

'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형참사 관련 명칭 병기'(동의함 47.1% ↔ 동의하지 않음 32.4%),

'사고 현장에 상징물·조형물 설치'(동의함 46.5% ↔ 동의하지 않음 33.7%)

3. 안전대구를 위한 제안

1) [세월호참사대국민인식조사] 조사결과를 통한 시사점

- 재난참사 예방에 책임자 처벌(87.1%)이 가장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함
-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도 법적 처벌과 규제강화(39.1%)가 가장 높게 나타남
- 재난참사 피해자활동 중 재난예방 및 대응교육(76.5%)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2) [2024대구시민안전의식조사] 조사결과를 통한 시사점

- 안전인식도에서 전체국민에 비해 대구시민이 낮은편임.
- 사회자본지수에서도 전국 일반 지역민에 비해 대구시민의 사회자본이 낮은 수준임.
- 사회자본지수와 행복온도관계지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남.
- 신뢰관계, 인류 보편가치에 대한 감수경, 공동체의식 등과 더불어 삶의 질이 안전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.
- 대구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.
- 각종 대형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거나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행동에 대해 공감한다는 태도가 많아 시민들이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대형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대형참사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형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희생자 추모행동과 더불어 법·제도, 시스템과 체계 정비, 일상적인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.

3) 총평

- '안전'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, 이번 조사로 대구시민이 안전 분야 전반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
- 곳곳에 '위험의 신호등'을 켜 공동체 성원들이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어야
 - '위험의 신호등'을 제대로 세우려면 과거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
 - 대구지하철참사 사고 현장에 상징물·조형물 설치 등의 기억 행동... 절반에 가까운 동의.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, 객관적으로 확인돼
 - 매년 2월 18일만 여는 일회성 추모 행사를 넘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참여와 문화예술 등의 추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
- 공동체가 잊지 않고 있다는 신뢰를 줄 때 사회적 재난을 막고, 설사 일어나더라도 공동체의 힘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

- 대구지하철참사의 추모공원이 현재 없는 것 등 유가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대구시가 해결해야

○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모두의 대책에 빈틈이 없도록

- 대형참사 발생원인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

: 조사 결과 안전 지휘 체계 및 시스템 미흡,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부실, 안전교육 및 안전에 대한 홍보 부족,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흡,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.제도 미흡, 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한 대비 미흡 순. 대체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○ 잊게 될 때 언제든지 발생하는 대형참사...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인지도가 약해지는 대구지하철참사에 대한 기억 교육을 강화

-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교과서 발행. 꼭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대구 역시 공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과 기억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대처해야

4) 대구시에 하는 제안 및 요구

-안전조례 제.개정 (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: 추모사업, 안정증진사업,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운영 규정,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규정등이 있는 조례)

-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명칭(예 : '2·18 기념공원') 병기

-218 대구지하철참사 사고 현장에(중앙로역 2번출구) 기억 및 추모조형물 설치

5) 대구시민행동 제안

-대구416연대에서는 대구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기억과 추모행동을 '18일 기억행동'으로 1년 째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.